

IBREA Report

뇌교육 Brain Education

목차

I. 뇌교육이란

II. 뇌교육 글로벌화

III. 뇌교육 대표기관



URL. kr.ibrea.org

□ 뇌교육(Brain Education)이란

뇌교육이란 '뇌 관련 제반 지식을 융합하여 건강, 행복,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지식이란 좁은 의미의 지식(Knowledge) 뿐만 아니라, 체험지식, 정보, 지혜 등의 포괄적인 의미의 지식을 뜻한다. 이에 비추어, 뇌교육학은 교육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뇌 관련 제반 학문영역을 융합하여 건강, 행복, 평화를 추구하는 학문영역을 의미한다.

특히, 뇌교육학의 태동은 인류과학의 정점이라는 뇌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 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시대적 흐름 속에 존재하지만, 21세기 뇌의 시대를 맞이해 한국에서 가장 앞서 정립된 뇌교육은 인간 뇌에 대한 깊은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뇌철학, 뇌운영체계에 대한 핵심원리, 실제적인 뇌기능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체험적 교육방법론을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 뇌과학의 발달에 따른 교육적 접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구의 뇌기반교육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간의 정체성과 창조성의 근간인 뇌의 본질에 비추어,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철학, 원리, 방법론의 3박자를 모두 갖춘 교육의 새로운 변화된 정의로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립된 뇌교육은 한민족 고유의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과학이 접목된 형태로, 철학, 원리, 방법론에서도 커다란 독창성을 가진다. 뇌교육은 한민족 전통의 인간관을 담고 있는 '인간완성'과 '홍익인간' 정신에 그 교육적 근간을 두고 있다. 즉, 뇌교육은 한민족의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미래자산인 뇌를 통해 정립된 21세기 인간완성학 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뇌교육은 오랜 기간 한민족 정신문화적 자산의 회복과 인간 뇌의 근본가치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해온 이승헌 총장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과학적 연구를 통해 체계화, 학문화 되었다. 특히, 한국의 뇌교육은 석박사 뇌교육 전문인력과 학문화의 산실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유엔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유엔협의지위(UN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한국뇌과학연구원, 유엔공보국(UN-DPI) 정식 지위 NGO에 등록된 비영리국제단체인 국제뇌교육협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학문화와 인재양성, 국제사회 보급과 네트워크를 함께 갖추고 있어 21세기 뇌의 시대를 맞이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뇌교육의 활용

- 1) 자기개발: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성장, 완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2) 학교교육: 뇌 잠재력 개발을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3) 기업교육: 개인과 조직의 가치창조력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 4) 평화교육: 인류평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철학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



▶ 21세기 뇌의 시대와 뇌교육의 필요성

미국과학재단(NSF)는 2002년 미 상무성에 제출한 보고서(NSF,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2002)에서 20세기 후반의 IT기술 시대는 21세기 초중반이 됨에 따라 BT, NT, CT 중심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이른바 뇌 중심의 융합기술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학문영역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대립적인 날을 세웠던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영역과괴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화학, 수학, 심리학 등의 대표적인 학문 분야도 ‘헤쳐모여’식으로 ‘융합’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뇌과학’이 있다. 미국에서는 ‘뇌과학을 통한 과학Science through Neuroscience’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모든 학문영역이 ‘뇌’와 융합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뇌융합 분야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지과학도 인간 뇌의 의식현상과 인지체계에 대한 규명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데 두고 있다. 이때 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 자신의 심리, 신체적 요인의 변화, 즉 교육의 문제이다. 교육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의식변화의 주된 요소이자, 그 의식현상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임을 이해할 때 21세기 교육변화의 흐름에 있어 ‘뇌’가 차지하는 의미가 단순한 차원을 넘어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뇌과학, 뇌건강 시대를 넘어 ‘뇌교육’이 갖는 특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에 뇌기반교육(Brain-based education)이라는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보편화되질 못했던 것은 인간 뇌의 근본가치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실제적인 방법론들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뇌교육’이란 단어와 학문적 정립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 서구가 갖질 못한 인간 뇌의 근본가치에 대한 깊은 탐구와 이에 바탕을 둔 체험적 교육방법론의 개발, 발빠른 국제화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 한국 뇌교육, 체험적 교육방법의 혁신적 차별성

2000년대초 미국 교육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뇌기반교육(Brain-based learning)은 현재도 뇌의 성장단계에 맞춘 인지발달 교육법, 뇌기반 교수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선진 교육계를 중심으로 집중력 저하, 학력부진, 폭력적 성향 등 학교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뇌’의 관점에서 해결해보려는 접근도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까지 보급이 이루어지질 않은데 비해, 한국의 뇌교육이 선진교육계를 중심으로 오히려 활발하게 보급되고 인정받고 있는 데에는 앞서 기술되었던 인간 뇌의 근본가치에 대한 뇌철학을 바탕으로 뇌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험적 교육방법론이라는 커다란 차별성이 존재한다.

한국 뇌교육의 학문화와 세계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재 뇌교육 분야의 유엔자문기구에 지정된 한국뇌과학연구원(1990년 설립 당시 한국인체과학연구원이란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탐구에 중점을 두었고, 이후 한국뇌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인간 뇌활용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은 기존 뇌연구의 주된 연구방식이었던 세포기반의 뇌신경생리학, 뇌질환연구 등의 분야가 아닌 인간 뇌에 대한 근본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뇌기능과 활용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와 함께, 2003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총장 이승헌)가 설립되어 뇌교육의 철학과 원리의 바탕인 국학을 기반으로 한 뇌교육학 정립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오랜 기간의 교육현장에서의 적용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접목해 집대성한 것이 바로 뇌교육의 통합적 교육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BEST(Brain Education System Training)이다. BEST는 연령별, 계층별, 영역별로 총 360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며, 두뇌건강, 자기계발, 학교교육, 노인건강 등 그 활용분야도 다양하며 모든 개별프로그램은 뇌교육 5단계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BEST로 대표되는 뇌교육의 통합프로그램도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뇌교육의 국제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점으로 손꼽힌다.

▶ 국제뇌교육협회, 국제적인 뇌활용 컨설팅기관으로 발돋움

2008년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가 발행한 보고서에 ‘뇌연구 주요사건’ 표에 따르면 ‘IBREA(국제뇌교육협회)’의 설립이 IBRO(국제뇌연구기구), SFN(신경과학학회) 등과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라는 ‘뇌’ 분야 중 뇌과학에 있어 실제 세계 선두권을 달리는 첨단 뇌영상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은 뇌과학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뇌에 대한 건강, 교육 등 실제적인 뇌활용 분야에서는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자리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뇌교육’이 있다.

2004년 설립된 국제뇌교육협회의 성장은 한국 뇌교육 세계화의 속도와 맞물려 있다. 2006년 한국 사단법인 등록, 2007년 미주뇌교육협회 설립, 2008년 3월 일본뇌교육협회 설립에 이어 6월 유엔본부에서의 100개국 지부설립행사를 통해 국제적 단체로 발돋움했다. 2009년 2월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 6월에는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 승인을 받으며 비영리국제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했다. 현재, 국제뇌교육협회는 뉴욕본부와 국제연수원을 갖추고 매년 수차례에 걸쳐 유엔과 협력해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뇌문화잡지 ‘브레인월드’ 발행, 두뇌올림피아드 IHSPQ 국제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국제뇌교육협회는 30여년간 구축된 뇌활용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 광범위한 국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과학, 건강, 교육, HRD(인적자원개발), 두뇌상품 등 사회 전반의 뇌 컨설팅 및 정보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와 뇌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들에게 국제적인 뇌컨설팅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 한민족의 국학이 한국 뇌교육의 철학적 뿌리

인간의 정신적 사고를 총괄하는 사령탑인 뇌의 활용이 곧 행동을 의미하고 그 행동이 개인과 사회에 현실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누구나가 가진 뇌를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뇌철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바른 뇌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뇌교육시대를 주도하는 경쟁력이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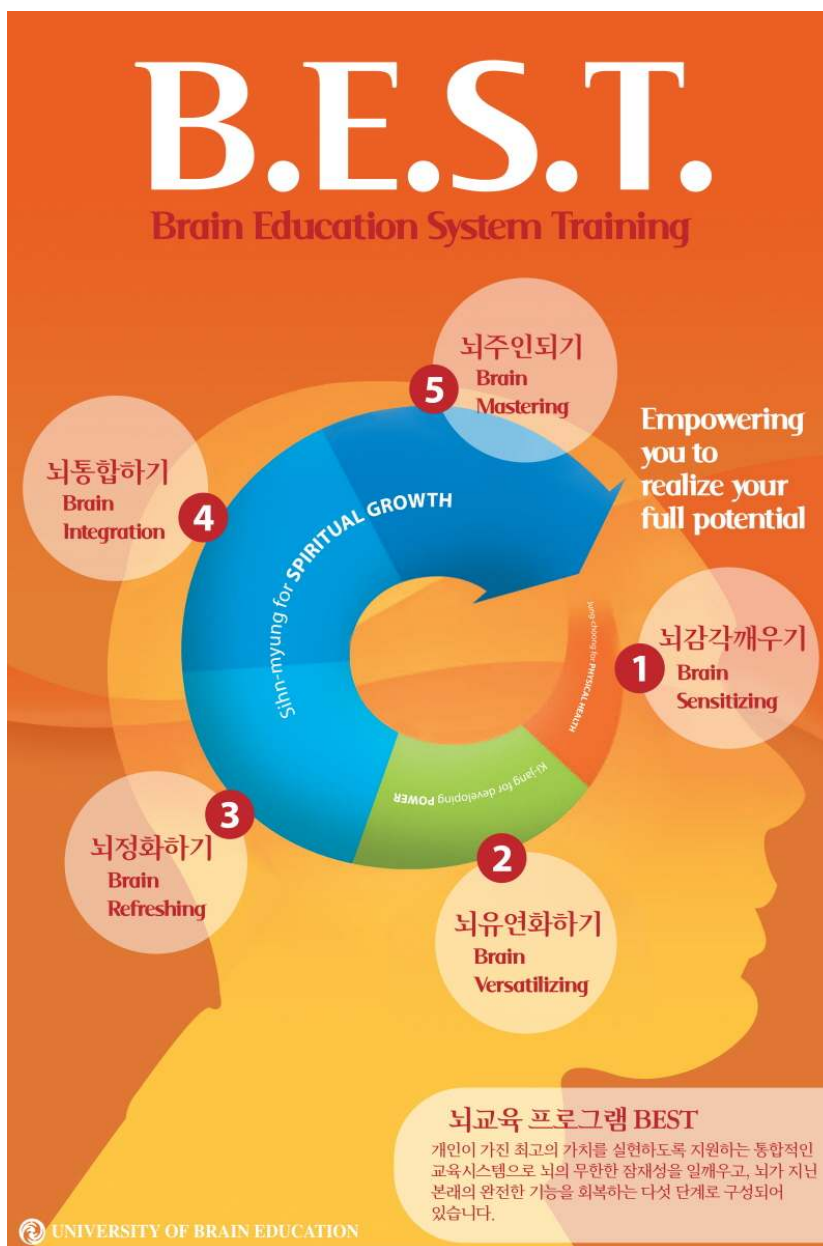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뇌교육이 갖는 뇌철학이 바로 한민족의 국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국학(國學)은 우리민족 고유의 정신으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외래의 정신이 들어오기 전 있었던 한민족 고유의 원형을 담은 철학과 정신, 생활문화습관을 의미한다. 하늘, 땅, 사람의 조화와 상생을 강조한 ‘천지인(天地人)’,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경천애인(敬天愛人)’,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 등 모두가 한민족의 국학에 담긴 정신이다. 한민족 고유의 대표적 경전 중 하나인 『삼일신고 三一神誥』 「신훈신訓」에는 ‘自性求子 降在爾腦 자성구자 강재이뇌’라는 문구에 이미 뇌의 가치를 기술해 놓고 있다. 뇌에 대한 원리와 철학이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모두 담겨 있는 셈이다.

서양에서는 21세기에 들어와서야 뇌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탐구를 통해 미래자산으로서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미 뇌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뇌에 부합하는 정신과 생활습관을 인재양성의 근간으로 삼았고 생활 속에서도 이를 실천하고자 했다. 실제, 고조선 및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어,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천지인天地人 정신과 문무교육,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심신수행의 습관은 한민족의 원형을 담고 있는 정신문화를 이루는 골격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뇌교육은 이러한 한민족의 정신문화적 자산과 21세기 뇌과학적 연구가 결합되어 체계화, 학문화된 것이다.

▶ 뇌교육 전체 프로그램

BEST (Brain Education System Training)

‘BEST(Brain Education System Training)’는 뇌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정립과 오랜 기간의 교육현장의 적용데이터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뇌교육의 통합적인 교육시스템으로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BEST 5단계는 1단계 뇌감각깨우기, 2단계 뇌유연화하기, 3단계 뇌정화하기, 4단계 뇌통합하기, 5단계 뇌주인되기이다.



□ 한국 뇌교육 세계화: Brain Education



2008.6.20 유엔본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4회 국제뇌교육컨퍼런스'



워싱턴 파커 미주뇌교육협회 부회장(왼편), 설동근 부산교육감(오른쪽)

UN의 인정을 받다

뇌교육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한국뇌과학연구원이 UN 자문 NGO로 인정받은 것은 한국에서 시작된 뇌교육이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은 1990년 설립 이후 뇌에 대한 심층적 탐구와 함께 뇌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인간 두뇌의 무한한 잠재성을 개발하는 다양한 과학적, 교육적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외 저명 학자들과 함께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뇌교육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교육현장에서 인성회복과 창의성개발을 가져오는 새로운 교육방법론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잠재성 개발과 평화교육으로서의 뇌교육 세계화

이러한 뇌교육의 세계화와 발전은 특히 뇌교육의 두 가지 측면이 주된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뇌교육이 뇌의 잠재성을 개발하는 새롭고 실천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이다. 뇌교육에는 스트레칭, 호흡, 신체운동, 감정과 습관을 정화하고 교정하는 훈련, 집중력과 상상력을 개발함으로써, 뇌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개발하는 5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



2008.8.12 유엔본부서 열린 '제4회 국제브레인HSP올림피아드 및 뇌교육컨퍼런스'



하니파 메조우 유엔경제사회국 NGO국장(왼쪽), 이승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총장(오른쪽)

되어 있다. 뇌교육을 통해 인간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뇌를 활용하고,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일깨우게 된다.

둘째로는 뇌교육이 인류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뇌의 참된 활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뇌교육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뇌의 특성을 자신 뿐 아니라 인류전체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은 UN 자문 NGO 신청서에서도 “뇌에 기반한 평화교육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인류평화라는 UN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뇌교육의 특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UN이 고심하고 있는 전쟁과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풀어나갈 예정이다.

선진 교육계의 뇌교육 보급

현재 뇌교육은 미국을 중심으로 21세기 새로운 교육대안으로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초 뇌교육의 미주 보급을 담당할 미주뇌교육협회(IBREA-USA)가 설립되면서 뇌교육의 미국 보급이 본격화 되었고, 2007년 한 해 동안 약 300개 공교육에 뇌교육이 보급되었다. 2007 8월 10일에는 뇌교육 국제대회가 미국 뉴욕 엘렌빌에서 개최되어 미국 교육계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3일간에 걸쳐 열린 국제뇌교육컨퍼런스는 700여명의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뉴욕주는 컨퍼런스 개최주관을 '뇌교육주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뇌교육의

국내외보급은 (사)국제뇌교육협회가 중추기구로서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에 세계본부를 두고 뇌교육의 국제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뇌교육의 미래가치

한국에서 시작된 뇌교육(Brain Education)에 대한 미래와 전망은 '뇌'가 21세기 사회 전 분야를 대표하는 키워드라는데 있다. 인류가 다가갈 마지막 미지의 영역이라는 뇌는 더 이상 하나의 과학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과학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뇌의 작용원리와 의식, 행동에 대한 최신의 연구결과들이 교육, 문화 전반으로 퍼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뇌교육의 미래전망은 단지 교육적 차원에서의 의미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측면에서도 시장 가치가 매우 크다는데 있다. 오늘날 글로벌화 된 지구촌 시대에 교육시장은 제약산업과 함께 가장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강과 교육이 인간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유형화된 제품 뿐 아니라 무형의 상품까지 진입장벽이 없어진 오늘날, 교육시장의 미래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갈 것이다.

특히 IT, NT, BT도 대변되는 기술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기술보편화시대에는 무형상품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져갈 것이며 기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서의 산업의 재편 또한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21세기에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이 각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가운데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짓는 뇌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뇌교육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부존자원 하나 없고 인재가 유일한 자산인 우리나라로서는 미래 유망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지난 반세기동안 드높은 교육열과 교육우선정책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섰지만, 창의성이 증시되는 21세기를 맞아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의 목소리 또한 그만큼 커지고 위기감도 증폭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하다는 우리의 두뇌를 20세기 뇌에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뇌로 변환해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 이상으로 그 교육적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와 사회적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뇌교육의 미래는 이것이 교육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를 함께 갖고 있는데 있다. 기술중심 시대를 지나 인간중심산업으로 나아갈 21세기에 뇌 관련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커다란 시장이며 무엇보다 무형자산으로서 세계화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뇌교육은 미래의 가장 유망한 HT(Human Technology)산업으로서 그 가치는 대략 1조불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무공해 산업이다. 최근 학계의 새로운 동향 중 하나가 학제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연구하며 대화해 나가는 것이다. 바로 21세기 최첨단 분야인 뇌과학과 이를 현장에 뿌리 깊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학이 만나 무궁무진한 시너지 효과의 사례들이 앞으로 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뇌과학연구원(KIBS)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선진국들이 사활을 걸고 도전하는 마지막 미지의 영역 '뇌'. '뇌과학을 통한 과학'이란 용어가 통용될 만큼 뇌과학은 인류과학의 정점으로 인식된지는 이미 오래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간 뇌의 인지신경과학적 기능과 활용분야에서 차별화되고 독창적 연구를 해 온 한국뇌과학연구원(원장 이승헌)이 200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유엔협의지위(UN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으며 국제적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1990년 한국인체과학연구원으로 출발해 일찍부터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해 온 한국뇌과학연구원은 뇌의 메카니즘 규명과 신경생리학적인 접근을 가진 선진국과는 달리, 인간 뇌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와 뇌의 실제적 활용과 개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독창적 연구노하우와 두뇌프로그램 개발역량을 구축해 온 것이 특징. 이러한 연구는 1997년 두뇌개발프로그램인 '뇌호흡(Brain Respiration)'의 개발로 그 첫 결실을 맺고, 인간 뇌의 새로운 인지능이자 잠재능력 개발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HSP(Heightened Sensory Perception, 고등감각인지)'의 개발로 새로운 도약을 한다. 1999년부터는 과학기술부 인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매년 국제뇌과학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뇌대중화의 선도기관으로 자리 잡아왔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의 유엔 협의지위 취득은 이승헌 원장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해 온 인간 뇌에 대한 본질적 탐구와 그 오랜 결실인 '뇌교육(Brain Education)'에 대한 세계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한국뇌과학연구원(Korean Institute of Brain Science)은 3년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 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UN 자문 기구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자문자격을 부여받은 기관들은 유엔이 개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회의나 국제회의 준비과정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뉴욕, 제네바, 비엔나의 유엔본부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등 유엔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과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설립방향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인간의 뇌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를 해 온 한국뇌과학연구원은 인류문명의 원동력인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로의 지속적인 확산을 이루어갈 예정이며 유엔협의지위 등록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로 평가된다.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글로벌 뇌교육전문가 양성하는 21세기 뇌교육의 메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www.ube.ac.kr)은 인간사랑 지구사랑의 보편적 평화사상인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의 구현'이라는 건학이념 아래 2003년 개교한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의 새로운 교명이다. 21세기 뇌교육 중심대학으로서, 글로벌 뇌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뇌교육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아래 학교명을 새로이 바꾸었다.

21세기 한국 뇌교육 세계화를 이끄는 중추적인 학문의 산실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21세기는 '뇌의 시대Century of brain'라고 강조하며, 나라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과학적인 연구성과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자 양성과 프로그램이 없다. 물론, 선진 교육현장에서 뇌를 통한 교육적 접근이 뇌기반교육, 뇌기반학습이란 이름으로 있었지만, 학문화는 일부 이루어진 반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현장에 보급이 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한국의 뇌교육은 수십년간의 과학적, 교육적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해 축적된 체험적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다.

뇌교육을 위한 최고의 인프라

21세기 뇌교육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교명까지 바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은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다. 우선, 대학원의 모든 교육과정이 이론과 체험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재학중에 뇌교육의 단계별 프로그램인 뇌운영프로그램 BEST 5를 습득하고,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뇌교육학과가 개설되어 뇌교육을 전공한 석박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더불어, 뇌교육의 학문적 연구와 연구활동을 위한 뇌교육연구소 그리고 방송국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이러닝센터(E-learning Center)는 이 학교의 자랑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부설 원격교육연수원(<http://teacher.ube.ac.kr>)은 뇌교육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뇌교육교원연수과정을 개설해 현직 교사와 학부모, 교육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은 교명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뇌교육의 학문을 육성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외 최고의 뇌교육 석학 교수 초빙, 뇌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협정 체결, 뇌교육 전문강사 육성 강화, 뇌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국제뇌교육협회(IBREA)

“21세기 미래자산 뇌활용 국제컨설팅 및 뇌교육 세계화”

국제뇌교육협회(IBREA)는 21세기 인류 미래의 키워드인 ‘뇌’ 자산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국제단체로 미국 뉴욕에 세계화 본부를 두고 해외 100개국에 뇌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뇌활용분야의 중추기관이다. 특히, 30여년간 구축된 뇌활용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 광범위한 국제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과학, 건강, 교육, HRD(인적자원개발), 두뇌상품 등 사회 전반의 뇌 컨설팅 및 정보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와 뇌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 단체들에게 국제적인 뇌컨설팅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2009년 2월 유엔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 2010년 유엔공보국(UN-DPI) 정식지위 NGO 승인이 되면서 국제적 신뢰성을 갖추었다.

- ▶ **주요 활동**
 - 1) 뇌교육 보급 & 컨설팅 Supply & Consulting
 - 2) 두뇌인증 Certification
 - 3) 국제교류 및 후원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Support

▶ **주요 연혁**

2004 ~ 2008	
	
	
2004. 9 국제뇌교육협회 창립	2008. 6 100개국 국제뇌교육협회 창립 (뉴욕 유엔본부)
2006. 9 한국 교육인적자원부 사단법인 인가	2008. 8 두뇌올림피아드 IHSPO 2009 국제대회 개최 (뉴욕 유엔본부)
2007. 1 미주뇌교육협회 (IBREA-USA) 설립	2008. 11 국제뇌교육협회인증원 (IBREC) 설립
2007. 11 뉴욕시의회 개성 (BRAIN IN DECA)	2008. 12 인본뇌교육학회 연례학술회의 (INFA) 개최
2009	
	
	
1. 8 뉴욕 유엔본부 정신건강 국제세미나 개최	7. 6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연례회의, 정신건강 국제세미나 개최 (제네바 유엔본부)
2. 16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가입	8. 12 두뇌올림피아드 IHSPO 2009 국제대회 개최 (뉴욕 유엔본부)
3. 10 지구시민운동 1달러캐달음 개시	8. 15 '브레인아트페스티벌' 개최 (뉴욕 라디오시티)
3. 15 IBREA Brain Education Center 오픈	10. 28 유엔환경계획(UNEP) 캐나부분부부터 감사장 수신
3. 23 미국 BrainWorld 잡지창간	11. 13 한중일 유엔글로벌콤팩트 라운테이블 컨퍼런스 참가
6. 20 유엔환경계획(UNEP)	
'Billion Tree Campaign : NGO Partners' 지정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GCU)

- ✓ 한국의 가치를 세계화하는 문화·복지·경영 중심대학교
- ✓ 국내 유일의 4년제 뇌교육융합학부 및 뇌교육융합연구소 운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인간 중심의 휴먼테크놀러지 시대에 맞는 휴먼정신 함양, 한민족 고유의 역사, 철학,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인재양성, 통합과 융합의 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핵심인재양성, 지구와 인간이 공존하는 21세기 글로벌 경영능력 함양을 위해 설립되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갖고, 4년제 뇌교육융합학부 설립 및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취득지원 등 다양한 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 ▶ **주요 활동**
 - . 문화콘텐츠, 뇌교육, 경영비즈니스 등 독창적 커리큘럼과 실용학문
 - . 국내 최초 두뇌훈련분야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취득 지원
 - . 정보보호 시스템, 국내 대학 최초 ISO27001 국제인증 획득
- ▶ **뇌교육 전공** 한국에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뇌융합 학문분야이자 21세기 인류 미래가치인 뇌를 알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뇌교육을 배우는 학과. 뇌과학을 통한 뇌에 대한 이해, 뇌와 인간에 대한 근본 철학탐구, 뇌교육적 방법론, 뇌교육의 미래전망과 적용, 뇌발달프로그램 등 두뇌활용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총체적으로 배우는 전공과정.

